

세계 석학들, 화순서 '미래 백신·면역치료' 논의한다

오늘까지 '국제포럼'...모더나 부사장, 中·日 전문가 등 참석 항암치료 면역요법 신기술·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등 발표

백신과 면역 관련 국내외 석학들이 화순에 집결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독감, 폐렴 등 감염병이 다시 확산하면서 백신과 면역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권위자인 미국 모더나(Moderna) 수석부사장 카일 홀렌 박사, 에피백스(EpiVax)의 앤드루 그로 최고경영자(CEO), 타카하시 요시마사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센터장, 이아소(IAISO) 바이오테라퓨틱스의 왕웬(맥스웰) 상무이사 등 미국·일본 등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이정현 국제 에이즈백신이니셔티브(AVI)의 수석과학자, 이훈상 국제보건기술연구 기금재단 전략기획이사, 장희정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석차욱 서울대 화학과 교수, 민정준 전남대의과대학 교수 등이 함께 한다.

이들은 모두 16일부터 이틀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막하는 전남도와 화순군,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추진위원회 공동 주최 '2023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인 화순국제백신포럼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의학·백신 포럼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년 명망있는 국내외 석

학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이오의학의 총아로 떠오르는 면역 치료 분야를 포함한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 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발전적 변화를 모색한다. 이번 포럼 주제는 '미래 백신과 면역치료를 위한 신기술'이다. 세계적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백신·면역치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중점 논의한다.

포럼 첫 날인 16일에는 백신·면역치료 분야 세계적 권위자들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둘째 날인 17일에는 국내 백신·면역치료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항암치료를 위한 면역요법 신기술', '세계를 선도하는 면역학과 기초과학의 발전방향',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액티비티 유전자와 전문 인력 취업 연계를 위해 화순 백신특구부스와 기업 전시부스 등을 운영하고, 화순바이오·메디칼 산업 집적단지(클러스터)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일찍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특구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바이오산업의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화순백신특구가 글로벌 백신·면역치료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미래 백신과 면역 치료를 위한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3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에서 내빈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백신·면역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도 착각 각취나가고 있다.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는 총사업비 480억원을 들여 설립했으며, 암, 희귀병 등 난치성질환 극복을 위한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 비임상 및 임상 협업, 시제품 제작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화순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 삼성서울병원, 박설바

이오 등 17개 기관·기업이 협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이 센터를 기반으로 첨단 의료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지원할 계획이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인당 현금 기부액 첫 감소...소득 높을수록 줄어

올해 평균 현금 기부액 58만9천원...2년 전보다 1만3천원 감소

올해 고액 기부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1인당 현금 기부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직전 1년간 기부자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은 58만9800원으로 2021년(60만3000원)과 비교해 1만3200원(2.2%) 줄었다.

1인당 평균 현금 기부금이 줄어든 것은 2011년부터 2년 단위로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처음이다. 2011년 16만7000원이었던 현금 기부금은 편차는 있었지만 조사 때마다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다만 올해 기부금 총액 자체는 늘면서 기부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13세 인구 1인당 평균 기부액(13만3500원)은 2021년보다 9100원(7.3%) 늘

었다.

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줄었지만 총 기부액 자체는 늘었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부자와 현금 기부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고액 기부액이 줄고 소액 기부가 늘면서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평균 기부액이 큰 고소득 가구일수록 현금 기부액이 더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현금 기부액은 74만9200원으로 2021년(89만6900원)보다 14만7700원(16.5%) 줄었다. 반면 소득 100만~200만원, 200만~300만원 가구의 평균 현금 기부액은 각각 37만7200원, 45만6500원으로 같은 기간 1만6200원(4.5%), 3만1000원(7.3%) 늘었다.

/연합뉴스

50 **금호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

· 일 시 :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 소 : 광주 금호고등학교 축주관
☎ 광주 금호고등학교 총동문회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르나...현행 3만원 → 5만원 상향 거론

권익위, 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외식업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날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나

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고, 윤 대통령 언급 이후 권익위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자 현장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미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지난 8월 기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려 바 있으며,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년간 자택 안치 전두환 유해, 파주 장산리에 안장

오는 23일로 사망 2주기를 맞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 장산리에 안장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정지훈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유골함에 담겨 약 2년째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전씨의 유해는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장지는 약 100m 고지에 위치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군 주둔지가 아닌 민간 사유지로 멀리

서 개성 등 북한 땅이 보인다고 한다.

전씨는 생전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 날을 맞고 싶다'고 사실상의 유언을 남겼고,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2021년 영결식에서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

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며 "또 화장해서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하셨다"고 유언을 전했다.

그러나 전방 고지 대부분이 군 주둔지이고, 군 부대를 벗어나면 지뢰가 매설된 곳이 대부분이라 전씨 측이 장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전씨 측은 유언대로 유해를 뿌리지는 않고, 유골함을 장지에 안치할 예정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GD-제23-11-01) **2023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대내외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가 상법 제365조의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3년 (주)골드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소 집 일 시 : 2023년 12월 07일 (목요일) 오후 02시 00분
2. 소 집 장 소 : 파티엘하우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73, 3층 (가산동, 엘시아빌딩)
3. 회의 목적사항 : 회사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인 건 제1호 의안 : 회사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인 건 본정 주주사 지위외 이전에 따른 정관 변경 (회사 정관 제3조)
4. 기타사항 : (주)골드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타 사항 나, 회사의 추진 사항 및 비전 발표 (발표자 : 박남필 대표이사)
5. 상정주주의 의결권행사시 관한 사항 : 금번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가. 직접행사 : 주총 참석증(또는 소집통지서),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총 참석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도장날인, 주주인감증명서(1부), 대리인 신분증 다. 문의전화 : 043-238-7771

2023년 11월 17일
주식회사 골드론 대표이사 박남필 직인함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3년 11월 15일 주주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410,000,000원을 금2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액면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6,000주에 대하여 유상소각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41,000주를 25,00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음.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또한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7일
동화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2길 4, 3층
대표이사 김동진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업주 메디칼빌딩

월 4천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6억 (현금39억6천만원)

010-3646-8700(직거래)